현대건설이 수주한 인천 부개 5구역 재개발 사업단지 투시도/제공=현대건설현대건설이 SK에코플랜트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인천 부개 5구역 재개발사업을 수주했다. 인천 부개5구역 재개발 정비조합은 지난 18일 총회를 개최하고 현대건설과 SK에코플랜트 컨소시엄의 단독 입찰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해 최종 시공사로 선정했다. 이 구역은 인천 부평구 부개동 318-15번지 일원 11만7300㎡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, 올해 인천지역 최대 재개발로 꼽힌다. 지하 3층~지상 최고 29층, 20개 동, 2013가구 및 부대 복리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. 지하철 1호선 부개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있으며 부평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교통·상권을 누릴 수 있다. 부개초등학교와 일신초등학교 등 두 개의 초등학교와 맞닿아 있어 등하교도 안전하게 할 수 있다.송내IC가 인접해 수도권으로의 접근이 편하다. 차로 5분 거리에 부천시민문화동산과 인천삼산월드체육관,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등의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. 인근에 부개산과 서촌공원, 밤골공원 등 녹지 공간도 품고 있다.현대건설 컨소시엄은 단지명을 '헤리티지 부평'으로 명했다. 부평의 가치를 품고 새로운 미래를 빛낼 주거 공간을 위해 부개산을 형상화한 랜드마크 디자인을 선보일 예정이다.